

## 최태순형을 추모하며

태순형: 형과 나는 6년 6개월간 학창시절을 같이 지냈소. 동성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6개월을 같이 지냈지요. 동성고등학교는 장면박사가 한때 교장으로 있었던 카톨릭 교회가 운영하던 학교로 형은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학업을 마쳤고 그 연장선에서 이곳에 와서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仁術을 베풀었소. 이점에서 저는 형을 우리 둘 중 가장 훌륭한 의사였다고 보는 바이오. 우리들의 장기려박사요, 우리들의 슈바이처 올시다. 한밤중에 불려나가도 항상 즐거이 환자를 돌보았다는 형의 이야기에 고개가 숙여지요. 이제 아무도 형의 밤잠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요. 안녕히 주무시오.

형의 영원한 친구 이회백